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0월8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3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노재현·노소영 증인에 대해 다른 날짜에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재현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으며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아 추가적인 소재 파악이 필요한 관계로 재출석 요구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노소영 증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증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노소영 증인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재판 진행 중인 당사자인데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조금 숙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질문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 민사소송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진술을 하는 데도 장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 하나하나가 자칫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일방 당사자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조금 숙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광규택 위원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그러면 광규택 위원님 말씀 같은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하고 제외시키는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재출석 요구를 해 놓고 광규택 위원님 말씀대로 불출석사유서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내온다면 양 간사가 협의해서 채택을 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는 그때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광규택 위원님께서 주신,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해서 법사위에 제출했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두 분의 이혼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5공화국 세력들의 정치 비자금에 은닉되고 또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것이 어찌 됐건 법원의 결정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사위 차원에서 정말 과연 어떤 비자금들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또 메모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갖추고 채택됐는지의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조세포탈 혐의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 있는 조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만약 그런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당사자들께서 나오셔서 직접 증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증인 채택 및 송달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원만하게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옥숙 증인 같은 경우는 연로하시고 지병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도 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단 재출석 요구를 해 놓고 불출석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양당 간사님들 의견을 모아서 제외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출석 요구를 일단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사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였으나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의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감사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김영철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위원장께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장시호가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장시호가 법정구속된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불러서 밤새 이재용 재판 증언과 관련된 증언을 위증교사했다 하는 내용 이 부분이 이미 그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출정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출석이 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은 여기 있는 여야 위원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실상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부분도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진상규명을 김영철 검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미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몇 가십거리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것으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한 조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질의라면 이것은 진상규명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충분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사생활이나 수사·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이와 같은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때 불법적인 내용은 끝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 내용이 장시호의 지인과 통화한 내역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김영철이 장시호와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빠’ 등등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십거리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가십거리라고 얘기하지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구치소에 가서 그 출정기록을 다 받아 봤습니다. 일요일에 수십 번, 토요일에 수십 번, 재판이 끝났는데 법정구속이 끝났는데 검사가 장시호라고 하는 인물을 일요일에 수십 번 그리고 토요일에 수십 번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그리고 설날 연휴에도 내내 불러내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내용이 날날이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영철은 뭇뭇하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라고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을 수십 번 불러내서 조사하고 취조하고 그리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위증교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은 수십 번 불러내는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가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까? 삼권분립에서 국회가 김영철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까? 수사 중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그것도 잘못되게 행사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오빠’라고 장시호가 부른 문자가 가십거리로 보이십니까?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잘못되게 조작이 되었는지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하게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나왔고 강혜경이 나왔고 드디어 KBS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김 여사가 말한 내용에 검찰에서 말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재판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김 여사 관련한 모든 게 만천하에 나왔어요. 김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관계 기관들의 후원, 여기서 어떤 후원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는지, 21그램이 끝내 후원을 하다가 용산 공사, 관저 공사, 회림도 마찬가지로 다 드러났어요. 이 내용을 무혐의 처분한 김영철을 불러서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저는 충분히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나와야 하고 여기서 진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이 지난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냥 청문회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보다 더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출석한 것처럼 동행명령장도 나는 거부하겠다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상범 간사님 말씀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나 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단순한 가십거리라든가 창피를 줄 목적으로 증인 채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거나 당사자가 발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만큼 또 법무부 국정감사도 계속 해야 되니 시간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송석준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포함해서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예.

우리 법사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아주 신성한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법원 국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 마무리 과정에서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도 안타깝지만 어제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양당 간사 합의 없이 국감장에서 방송의 음성을,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육성, 음성을 여과 없이 방송을 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시면서 이어서 바로 이것을 들으면 ‘탄핵 전야, 탄핵풍이 거세게 불어온 걸 느낀다’라는 소위 탄핵 발언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뭘니까? 우리 헌법상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탄핵 얘기를 공공연하게 ‘거세게 불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의 행태를 보고 행패를 부린다 또 소란을 부린다 이런

동료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바로 다른 분도 아닌 정청래 위원장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에게는 ‘이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저물어 간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11월에 이재명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서 마치 위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정말 저는 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마주보고 계시는 대선 배님 박지원 위원님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곤조곤하시는 걸 보고도 제가 참 답답했지만 그래도 아주 내공 있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유지해 주셔야 할, 모범을 보여 주셔야 할 위원장께서 여과 없이 방송을, 그것도 두 개나 트셨어요.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방송이라든가 국감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그러면서 질서를 문란시켰을뿐더러 동료 위원들의 의사진행 요청을 갖다가 행패를 부린다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청래 위원장님,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우리 법사위의 수장으로 서 사과하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참지 마십시오. 발언하셔야 됩니다. 참으면 병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기 바라구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한 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질의시간에 정당하게 질의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이 아니라 제가 채널A 단독뉴스를 튼 겁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각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틀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기 그 조항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걸 다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위원의 질의 중 시청각 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에 시청각 자료, 영상은 다 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질의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송석준 위원님이 아마 좋아할 거예요.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러우시면 지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님도 채널A 뉴스 트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아마 손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운영상 제가 알아보니깐 대법원장은 모두발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발언하려고 하는데 그냥 손 든 것도 아니고 일어나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송석준 위원님께서 제가 퇴장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과할 내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송석준 위원님이 대법원장께 사과할 것을 제가 대신 사과했으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한테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어제 얘기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을 왜 안 주시고 일방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어제 본인에 대한 모독성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참 존경하기 힘든 송석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탄핵 발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나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요?

어디가 지하인지 모를 정도로 이 정권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울고 갈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발언을 못 한다고요? 지금 온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늦는 것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필요하면 해야지요. 왜 얘기 못 합니까?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지요.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하면 안 된다’. 이것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인 사생활이라고? 오빠 검사가 결국에 개인 사생활 이니까 이것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라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검사 탄핵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이 정도가 됐으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당연히 이 사안은 감찰하고 징계를 했어야지요. 오늘 법무부 국감 아닙니까? 이 사안 징계했어야 돼요. 징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될 사안으로서의 증인 당연히 나와야지요. 왜 자꾸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지……

이래 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법정에 가서 구형하고 공판 진행하겠습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장시호 씨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사실관계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고 오히려 위법들이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들 수사하고 공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사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세세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사안에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생일파티 얼마나 세세하게 진술합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는 출정

기록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장시호 사건 봐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탄핵 사유에다 추가해야 된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출석하는 증인 동행명령 발부해도 검찰이 수사하니까 버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법 이 부분 발의했습니다. 경고하는데 피해 갈 길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 눈에 박준태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못 봤습니다.

○박준태 위원 김영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수사받았고 핵심 인사들이 혐의 인정했고 구속됐고 기소됐고 형이 확정되어서 실형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안 끝났어요. 돈봉투 돌리던 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제가 명단 공개해야 됩니까? 그중에 아직 여섯 명은 검찰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소환해도 가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누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 할 자격 있습니까?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씀 하실 것 아니에요?

수사했던 검사를 압박하는데 이후에 그 사건 수사할 검사가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 민주당 사건 수사한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자가 되고 그것을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장에 불러 나오고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까지 한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앞으로 수사할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여당은 검찰에 영향력 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야당 위원님들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세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위증교사 주장했지만 야권이 특정한 위증을 위해서 만났다면 그 날 장시호와 만난 적도 없다는 게 장시호의 출정기록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구치소까지 가 가지고 확인한 사실 아닙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영철 검사를 무슨 문제 검사의 상징인물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도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탄핵 청문회까지 했으니까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신 있게 탄핵을 하십시오.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가 법무부 오늘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더 토론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께서 밖에 나가셨는데 제가 어제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의원을 말씀한 것을 조곤조곤했다, 그런데 위원장은 나쁘게 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렇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문, 발언하면서 민주당에 결재를 안 받습니다. 저도 제가 발언을 하면서 송석준 위원이나 국민의힘 위원들 결재 안 받고 해요. 내 책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그러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야당 위원인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거론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부터 ‘왜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심은 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탄핵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홍보해 주지 마세요.

민주당이, 야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전부 자기 식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김대남이 우리 행정관이었습니까? 명태균이 우리한테 여론조사 해서 가져왔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민주당입니까? 강혜경 씨, 민주당 보좌관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재영 목사도.

모든 것은 자기 식구들이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만든 것으로 몰아붙이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로……

지금부터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영철 검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에서는 찬성하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지금 우리가 법무부 상대 국감을 해야지 그러한 것을 토론해서 시간을 벌어 주면 박성재 장관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후배 검사 잘 되 가지고 우리 국정감사 편하게 한다.

생산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토론 종결하고 표결 부처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얘기를 좀 들어 보시지요.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 동의, 이성윤 위원 하시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님 재청하시는 거지요?

○**김승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한 번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맞아요, 방식은.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사과 요구했잖아요. 세 건 중에 두 건 이유로 사과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탄핵 관련 발언과 동료 위원을 모독한 행위에 대한 사과 분명히 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 사과 요청합니다!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도를 넘었잖아요, 도를.

○**박은정 위원** 제 질의 방해한 것도 사과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국회 직원에게 동행명령장을 교부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 등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동행명령장 전달)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과하세요!

○**박은정 위원** 저한테도 사과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

○**위원장 정청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10. 21.(월) 대검찰청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10. 25.(금) 종합감사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운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